

물가 상승률 1%에도 농산물 가격은 ‘꿈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으나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가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가운데 곡물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1.8%)부터 반년 동안 1%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의 경우 1월 1.0%, 2월 1.4%, 3월 1.3% 등의 추이를 보였다.

채소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1.4% 오르는데 그쳤다. 식품 부문이 2.0% 올랐으나, 식품 이외 부문이 1.1%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다. 지난해 9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농산물값 8.9% ↑

품목성질별로 채소 8.5% · 곡물 22.7% 올라

(6.0%)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신선채소 상승률은 8.5%에 달했다. 지난 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배추, 무, 호박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신선어개와 신선과일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3.9%, 1.8%로 나타났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8.9%로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16.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농산물 중에서도 감자(76.9%), 호박(44.0%), 무(41.9%) 등 채소류 가격이 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가격은 지난겨울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달에도 0.2% 오르는데 그쳤지만, 급격히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이 다.

감자 가격은 2004년 3월 85.8% 올랐던 이후로 14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파종기 때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생산성이 악화된 결과로 분석됐다.

4월 곡물 물가 상승률은 22.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래 가장 높았다.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쌀값은 30.2% 상승해, 1981년 9월(35.5%)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오징어(29.1%) 등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5.0%로 나타났다. 오징어는 어획량 감소로 인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1년6개월째 가격이 계속 오름세다.

축산물은 달걀(-35.2%) 등의 하락세로 인해 4.7% 떨어졌다. 이에 전체 농축산물 상승률은 4.1%로 나타났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은 1.4% 오르는데 그쳤다.

석유류의 경우 3.8%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아직 국내 물가에는 영향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경유가 5.5%, 휘발유가 4.2% 오른 가운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3.7% 내렸다.

김운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4월 말에 유가가 상승해 일주일 정도 가격 반영이 늦어졌을 수 있고, 환율의 영향으로 아직 덜 반영됐을 수 있다”며 “5월 달까지 두고보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국제유가가 올라도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국내 가격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도 전체 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공공서비스(0.3%)와 집세(0.8%)의 상승폭이 낮았을 뿐,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2.5%로 전월과 같았다. 외식업 중에서는 생선회 상승률이 5.4%로 두드러졌다. 김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외식물

가 상승세에 대해 “외식은 식재료값이 많이 나가는데 농축산물 등 식재료 가격이 작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며 “물론 인건비도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임대료나 세금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가 3.0%로 전월(2.9%)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9%), 음식 및 숙박(2.7%), 의류 및 신발(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민생활에 밀접하고 구입빈도가 높은 무, 감자 등 일부 채소류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외식 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체감물가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채소류, 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CGV 1+1 프로모션'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GV와 함께 하는 '영화 티켓 1+1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카드(채움) 회원은 대상으로 행사기간 중 매주 수요일 전국 150여 개 CGV 극장에서 2D 일일영화 현장(매포스) 결제 시 영화 티켓 1+1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요일 당일 뿐 아니라 다른 요일의 상영 영화도 수요일에 미리 결제하면 1+1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행사기간 중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또 NH농협카드(채움)의 기본 탑재 부가서비스인 CGV영화 1000원 할인 중복 적용(일 1회, 월 4회로 제한)도 가능하다. /기동취재반

작년 보험사 해외점포 자산 늘어

88억8600만 달러로 22.2% ↑ 국가별로 중국 55억으로 최대

지난해 보험사의 해외점포 자산이 중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영업 실적 증대로 유가증권 등 운용자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보험중개업·금융투자업·부동산인대업 영위 38개 점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해외점포 총 자산은 88억86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22.2%(16억12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보험영역 실적이 증대함에 기인한다. 이에 유가증권 등 운용자산이 11억5600만 달러 늘어났다.

부채와 자본은 각각 55억4100만 달러, 33억4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대비 각각 27.4%, 14.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험업 점포의 영입이 확대되면서 책임준비금이 약 7억2200만 달러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규 점포 진출과 기존 점포 유상증자 등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 자산규모는 중국이 55억3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26.4% 늘어나는 등 가장 큰 폭 증가

했다. 미국이 13억38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약 232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적자폭은 크게 축소(4710만 달러)됐다.

이는 보험영업 실적이 개선되고 투자이익이 증가하면서 보험업 점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결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순이익이 발생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는 순손실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험업은 순손실 30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 투자업은 순이익 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줄었다.

한편 지난해 말 10개 보험사(생보3 손보7)의 해외점포는 42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개 증가했다. 코리안리 라부안지점과 두바이지점이 신설됐으며 삼성화재 하노이법인이 지분을 취득했다. 반면 한화생명미 미국법인을 매각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9곳으로 가장 많다. 베트남 5곳, 인도네시아 4곳, 싱가포르 3곳, 일본 2곳 순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업 36개, 투자업 6개로 손보업 영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전기차’ 니로 EV 최초 공개

기아자동차는 2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5회 국제전기차 엑스포'에서 니로 EV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3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42%

전월대비 0.06%p ↓... 기업대출 · 가계대출 모두 하락

지난 3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8%)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 중 연체된 채권 정리 규모(2조1000억원)가 신규로 연체가 발생한 규모(1조2000억원)를 웃돌며, 연체 채권 잔액(6조3000억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데 기인했다.

지난 3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0.64%)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말에 이어 0.45%를 유지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인트 떨어진 0.18%를 기록했다. 이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3월 중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효과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과거 동월기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농협상호금융, 연체가산금리 '최대 3%' 인하 조치 시행

농협상호금융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취약·연체차주의 연체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농·축협의 연체 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8~11%이내(조합원의 경우 6~9% 이내)에서 차등 운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이후부터는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3% 이내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인하 조치로 인해 농·축협 내 연체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농협상호금융은 취약 차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차주의 채무변제 총담 순서 선택권 부여, 원금 상환 유예 등 기타 지원 방안도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